

콜마, 경영권분쟁 26일 첫 표대결 운동한 “구 상현, 이사회진입 안돼”

콜마비엔에이치 임시주총 핵심
사내이사 윤상현·이승화 선임건

운동한, 안건 가처분신청 소송
안건 결의시 효력정지 수단 마련

창업주 운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의 ‘독점 경영’을 주장하며 콜마비엔에이치 이사회진입 문턱을 높이고 있다.

14일 콜마그룹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전 10시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콜마비엔에이치 임시 주주총회가 개최된다. 이번 콜마비엔에이치 임시 주총은 사내이사 윤상현 신규 선임의 건, 사내이사 이승화 신규 선임의 건 등을 핵심 쟁점으로 다뤄 찬반을 가르는 표 대결이 열린다.

이를 앞두고 운동한 회장은 지난 1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각 안건에 관해 가처분을 신청하는 소송’을 청구했다. 해당 안건들은 ‘적대적 인수 합병’으로 인해 신규 이사 선임을 결의하는 경우로, 의결정족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윤 회장은 콜마비엔에이치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제시하며 이번 주총 안건은 보통 결의방법인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

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윤 회장은 이를 위배하는 방법으로 결의가 이뤄지는 경우, 위 안건들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도 구함으로써 사후 통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콜마홀딩스 측은 윤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모든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은 법적 절차를 밟으며 실리적으로 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콜마비엔에이치 주주 현황은 콜마홀딩스가 44.63%를 보유해 최대 주주이고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 대표 7.78%, 한국원자력연구원 6.05%, 운동한 회장 1.11%, 윤여원 대표의 두 아들 이민석·영석 각각 0.01% 등의 순으로 구성됐다. 이번 임시 주총 소집과 안건 상정은 모두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주주제안으로 추진해 왔다.

윤 부회장은 콜마그룹 핵심 경영진으로서 지주회사와 계열사 전반에서 ‘경영쇄신’을 본격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윤 부회장은 지주회사 콜마홀딩스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인 화장품 제조개발생산(ODM) 회사 한국콜마 운영을 맡고 있다. 콜마홀딩스 자회사 오가노이드 기반 생명공학기업 넥스트엔바이오, 한국콜마 자회사인 전문의약품 기업 HK이노엔 등에서는

기타비상무이사로 경영 활동을 펼쳐 왔다.

이와 함께 현재 상황은 윤 부회장이 콜마비엔에이치 사내이사 도전에도 나선 것으로, 향후 윤 부회장은 콜마그룹 내 총 8곳에서 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난 2018년 14곳에 달하는 겸직으로 한국콜마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일각에선 윤 부회장의 추가 겸직은 기업체 이사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 충실하게 의무를 다한다는 데 중점을 둔 국내외 지배구조 모범 기준에 어긋난다는 평가다. 특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생명공학 등은 각 사업에 적합한 맞춤형 규제 대응, 생산 능력 확충, 신규 고객사 유치 등 고도의 몰입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경영 원칙에 대한 문제 제기의 목소리도 나온다. 규제 기관, 고객사, 주주, 임직원 사이에서 상충되는 이해 관계가 기업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산업 현장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겸직과 이해상충 요소를 해소하지 못하면 기업 가치에 디스카운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GS리테일 오진석 플랫폼BU장(왼쪽 세번째)과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오른쪽 세번째) 등 양사 관계자들의 모습. /GS리테일

GS리테일, 국산 축산물 소비촉진 돕는다

농협경제지주와 업무협약 체결

GS리테일이 농협경제지주와 ‘국산 축산물 소비 촉진 및 지역 축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를 돕고,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12일 GS리테일 오진석 플랫폼BU장,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GS리테일은 농협안심한우 등 국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G

S25, GS더프레시 등 전국 1만8000여 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선보인다.

양 사는 공동 상품 기획에도 나선다. GS25는 추석을 앞두고 7만원대부터 14만원대까지의 농협안심한우·한돈 선물 세트 4종을 내놔다. GS더프레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명절 기간 농협안심한우 론칭 특별 행사를 준비 중이다.

GS리테일 오진석 플랫폼BU(비즈니스 유닛)장은 “농협과 협력해 우수한 국산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축산 농가와 상생 모델을 구축하게 됐다”며 “지속 가능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롯데면세점, 中 단체관광객 모시기 나서

‘무비자 정책’ 앞두고 中 현장 방문
여행사 30여곳 만나 유치방안 논의

롯데면세점이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현지 여행사들과 협력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롯데면세점 남궁표 마케팅부문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국경절 연휴와 단체관광 무비자 정책 시행을 앞두고 직접 광저우와 칭다오를 방문했다.

롯데면세점은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현지 주요 여행사 30여 곳과 만나 단체관광객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광저우 CITS 여행사, 칭다오여유그룹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방문은 중국 2·3선 도시 관광객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추진됐다.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칭다오, 항저우 등 2·3선 도시 단체관광객의 매출 비중이 증가했으며, 구매 품목도 기념품, 식품 등으로 다양해졌다.

롯데면세점은 국내에서도 관광객 맞이를 준비한다. 이달 18일에는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관광통역사 200여 명을 초청해 혜택 등을 소개하는 행사를 연다.

롯데면세점 남궁표 마케팅부문장은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경절 기간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인천공항-면세점 임대료 갈등 장기화 조짐

법원, 인하 강제조정안 제시에
인천공항 “수용 안해”입장 고수
소송·위약금 지불, 철수 가능성

인천공항공사(인천공항)와 신라·신세계면세점 간 임대료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원이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에 대해 임대료를 각각 27%, 25% 인하하라는 강제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인천공항이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다. 이에 따라 양측 임대료 분쟁은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위약금을 지불하고 공항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신세계면세점의 이용객당 임대료 단가를 기존 입찰가액에서 27% 낮추라는 취지의 강제조정안을 통보했다. 이달 5일 신라면세점에 25% 인하 조정안을 제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조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신세계(9020원)와 신라(8987원)의 객당 임대료

는 각각 6500원대와 6700원대로 낮아진다. 현재 임대료는 4기 면세 사업자 입찰 당시 결정된 것으로, 공항 여객수에 객당 임대료를 곱해 산정하는 여객수연동 방식이다. 코로나19 시기 출국자수가 감소했음에도 고정 임대료로 임대료가 부과되자 변명했다.

법원의 조정안은 사실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조정안 자체에 강제성이 없는 데다, 인천공항 측이 즉각 이의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은 계약된 임대료를 깎아주는 것은 공사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첫 조정 기일 이후 모든 조정에 불참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인천공항이 2주 내 이의를 신청하면 조정안은 무효가 되고 양측 갈등은 수년간 이어질 수 있는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매달 수십억 원 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면세점 입장에선 장기 소송전 자체가 큰 부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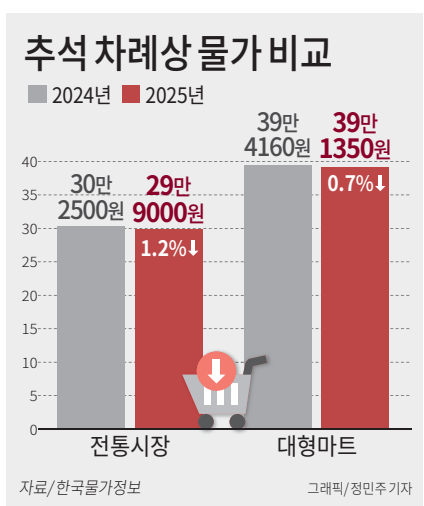
/손종욱 기자

전통시장 추석 차례상 비용 ‘29만9000원’

2년 연속 하락… 4년만에 20만원대
대형마트 39만1350원 0.7%p 내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예상보다 안정세를 보였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하락하며 전통시장 기준 4년 만에 20만 원대로 내려온 것이다.

전문 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정보가 추석을 3주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29만 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500원(1.2%) 줄었고, 대형마트는 39만 1350원으로 2810원(0.7%) 낮아졌다. 전통시장의 경우 2021년 27만 원대에서 2022년과 2023년 30만 원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29만 원대로 내려오며 4년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과일과 채소 가격이 안정된 반면, 축·수산물과 쌀·가공식품은 상승했다. 차례상에서 비중이 큰 과일류는 지난해에 이어 사과·배 착황이 양호했고, 여름 내내 일조량이 많아 당도

도 높았다. 태풍 피해가 거의 없었고, 추석이 늦어 다양한 품종이 출하되면서 가격 안정세를 보였다. 샤인머스켓과 단감 등 선물용 과일도 출하량이 늘어 공급이 원활하다.

채소류 역시 초여름 폭우·폭염으로 한때 가격이 뛰었지만, 9월 들어 기온이 낮아지고 생육이 회복되며 공급이 늘었다. 작업량 증가로 출하가 확대되면서 지난해와 달리 가격이 크게 안정됐다.

반대로 축산물은 여름 폭염으로 사육 환경이 악화되며 관리비용이 늘고 일부 폐사가 발생해 가격이 올랐다. 수산물도 해수온 상승으로 생산량이 줄고 환율·유가 상승이 겹치면서 수입 비용이 증가해 가격이 상승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CU, 990원 최저가 PB 시리얼바 출시

CU가 이달 990원짜리 업계 최저가 PB 시리얼바 2종(오리지널, 초코맛)을 내놓고 PBICK 초저가 라인업을 전격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CU는 최근 자사 신규 마스터 PB인 PBICK(피빅)의 라인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장기 불황 속에서 고객

의 눈높이에 맞춘 PB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CU는 스낵류를 필두로 HMR, 육가공류, 음료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90여 종이 넘는 PBICK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CU는 고객 반응도가 높은 스낵류 중 최근 시리얼바의 매

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PBICK 신규 라인업으로 시리얼바 PB를 기획했다.

실제 CU의 시리얼바는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3년 간 시리얼바 전년 대비 매출신장률은 2022년 36.5%, 2023년 22.4%, 2024년 15.6%에 이어 올해(1~8월) 역시 19.8%의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신원선 기자